

## 갈림길

잠언 15:24

인생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하는 인생길에 갈림길이 너무 많습니다. 갈림길은 선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7/3-5)의 주제는 “갈림길”이었습니다. 7월의 구역예배에서도 다시 한 번 “갈림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 1. 가야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갈림길에서 가야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할 길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얻은 결론을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기도 하셨고 바디매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들과의 대화(잠8:12),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막14:36)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 항상 선택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정의와 공평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요셉처럼 처음부터 “NO!”라고 거절하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가족과 공동체가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또 갈림길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탐욕의 길입니다. 자기부인을 통해 내면에 있는 탐욕을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1:14-15)

우리는 가야 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굽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10:9)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뛰어 내릴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낙하산만 가지고 있으면 여유롭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할 평강의 길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야할 길은 회복의 길, 부흥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들에게 우리의 길을 너무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목마른 세대에 물을 너무 얇게 뿜었습니다. 거기에는 혼탁한 물만 있었습니다. 못 먹을 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잠언25:26) 성도와 교회가 그 길에서 돌이키면 다시 생수의 강이 교회로부터 흘러날 것입니다.

### 2. 뭔가 어려울 때, 뭔가 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어려워 어느 길도 선택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시편 77:19) 선택이 애매할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길을 선택하여 가는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함께 가는 무리가 목표는 같은데 어려운 것은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다른 무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목표가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안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한 길이 너무 쉽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의 길은 너무 쉽게 풀려났습니다. 배도 쉽게 만나고 잠도 잘 왔습니다. 그 쉬운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된 선택이었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훈련 없이 갈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너무 쉽다면 멈추어서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지 다시 분별해 보십시오.

### 3. 내가 할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22:6) 속도보다 방향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일성수(시간)와 십일조(물질)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내 가는 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16:9)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길을 막으시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가는 길 앞에 어려움을 피하게도 하시고, 내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고난도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와 인도가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림길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남기고, 그리고 복된 열매를 남깁시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림길에서 최선의 선택이 최선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 나눔의 시간 ○

1. 최근에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2.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였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4. 성도들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을 남깁니까?